

(761)

조

권

주제 108
(2019)

12





차 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정에 오르시었다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2
평화번영의 위대한 려정이 수놓아진 2019년	8
두메산촌 양덕땅의 새 집들이	20
혜산 - 삼지연철길 개통식 진행	20
인자하신 그 영상 그림습니다	22

평양타조목장	24
수산자원을 늘여간다	28
평양 지하철도	30
서흥땅의 교육자가정	34
어린이들의 반독경기	36
소중한 꽃을 이룬 취녀	38
체험으로 새기는 민속풍습	40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백두산정에 오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이르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0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자욱은 지난 10월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2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마감하고있는 삼지연군안의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물라보게 변모된 읍전경을 바라보시며 2단계 공사진행정형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 읍이 교양구획, 군급기관구획, 살림집구획, 지방공업구획, 상업봉사구획, 체육문화구획, 교육보건구획, 관광구획으로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구획이 이 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과 환경에 잘 어울리게 건설되였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삼지연군구리기 2단계 공사의 마무리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주변지구, 농장들을 일신시키기 위한 3단계 공사에서 제기되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경성군 증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망대에 오르시여 먼지만 훑날리던 이곳에 수십정보의 현대적인 남새온실과 연간 2 000만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양묘장이 일떠서고 온실농장과 양묘장의 종업원들이 살게 될 수백세대의 소충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학교, 유치원, 락아소, 병원, 각종 편의봉사시설들이 준비하계 들어섰다고 하시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것이 바로 이런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하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0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수경온실과 토양온실, 농장종업원들의 주택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금강산관광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강토에는 뛰어난 명승지가 많지만 천태만상의 자연경관을 이루고있는 금강산은 명승의 집합체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자연경치를 인민들이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수 있게 금강산지구에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를 훌륭하게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완공단계에 이른 양덕군 온천관광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실내온천장과 야외온천장, 스키장을 비롯하여 치료 및 료양구역들과 다기능체육문화지구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양덕군 온천관광지구는 건축형식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0월

내용이 새롭고 독특할뿐아니라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이 현대적인 수술대, 해산대, 진찰침대, 환자운반발차, 이비인후과종합치료기, 치과종합치료기를 비롯한 병원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성능이 좋은 각종 의료기구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첨단공장으로 꾸려진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증진시키는데 절실히 필요한 의료기구를 많이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것은 곧 인민들에 대한 관점문제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글 최광호



경성군 중평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건설장



묘향산의료기구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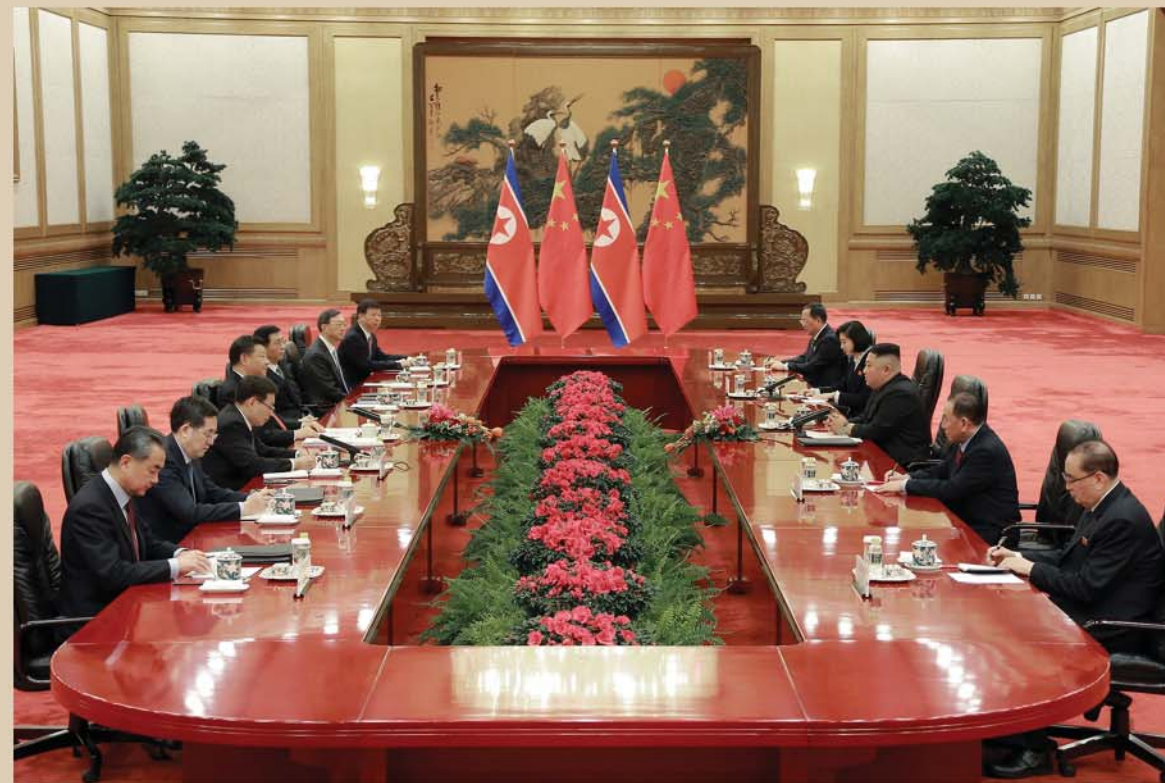
평화번영의 위대한 려정이 수놓아진 2019년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는 의식이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가 마련한 오찬을 함께 하시며 즐거운 담소를 나누시였다.
주체108(2019)년 1월

주체108(2019)년이 저물고있다.

올해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는 공화국의 의지와 노력이 뚜렷이 발휘된 의미 깊은 해였다.

뜻깊은 신년사에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르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대외정책적립장을 재천명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대외활동은 올해 정초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 방문으로 시작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시고 친선적

이고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조중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을 교환하시였으며 중요한 공동인식을 달성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올해의 첫 대외활동과 더불어 힘있게 파시된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불패성과 공고성은 지난 6월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와와의 상봉으로 하여 더욱 승화발전되였다.

조중최고령도자들께서는 두 당, 두 나라사이의 관계를 깊이있게 더욱 발전시키는데는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에 유리하다고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평양에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었다.
주체108(2019)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 4월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여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진대통령과 감격적인 첫 상봉을 하시었다.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는 호상 이해와 신뢰, 친선과 협조를 더욱 증진시키고 새 세기를 지향한 조로친선관계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조치들에 대하여 합의하시였으며 당면한 협조문제

들을 진지하게 토의하시고 만족한 견해일치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로씨야련방에 대한 친선방문은 력사의 풍파속에서도 세기와 세대를 넘어 이어져온 오래고도 긴밀한 조로친선의 굳건함을 과시하고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새로운 정세하에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부합되게 더욱더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었다.
주체108(2019)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회담하시었다.
주체108(2019)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리설주녀사와 함께 금수산영빈관을 방문하시여 습근평동지와 팽려원녀사와 단란한 가정적분위기속에서 환담을 하시었다.
주체108(2019)년 6월



평화번영의 위대한 려정이 수놓아진 2019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의 조선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습근평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지난 3월초 월남의 당과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뜨거운 환대속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월남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공식친선방문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피로써 맺어지고 온갖 시련 속에서 공고화된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힘있게 과시하고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가일층 강화발전 시키였다.

지난 2월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월남의 하노이에서 제2차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트럼프대통령은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싱가포르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인 로정에서 괄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이에 토대하여 조미관계개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

가는데서 나서는 실천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건설적이고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 6월 30일 트럼프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조미대결과 갈등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그와 전격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력사를 뛰어넘을 세기적인 상봉을 이룩한 조미 두 나라 최고수뇌분들의 과감한 대응단은 뿌리깊은 적대국가로 반목질시해온 두 나라 사이에 전례없는 신뢰를 창조한 사변으로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과감하고 주동적인 대외활동이 진행될 때마다 국제사회계는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하면서 그이를 자주 정신이 투철하고 지도력이 뛰어난 정치가, 창조성이 높고 완강한 실천력을 지닌 지도자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글 최의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습근평동지와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불패의 사회주의》를 관람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조중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과 녀사들께서는 숙소의 정원에서 함께 산책을 하시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친교를 두터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러시아연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뵙뻘각하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뵙뻘대통령과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환영하여 뵙뻘대통령이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와 뵙뻘대통령사이의 단독회담이 진행되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태평양함대 전투영광기념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4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인 원 푸 쩡동지와 상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원 푸 쩡동지와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수상 원 쉰언 폭동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의장 원 티 낀 응언동지와 담화를 나누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호지명주석의 묘와 영웅렬사추모비에 화환을 진정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3월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미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제이.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상봉하시고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만찬을 함께 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트럼프대통령과 관문점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시고 회담하시였다.
주체108(2019)년 6월



두메산촌 양덕땅의 새집들이



로동당시대에 또 하나의 새 문명을 펼쳐며 천지개벽되고있는 평안남도 양덕군에 군안의 주민들을 위한 새 보금자리들이 솟아났다.

어제날의 산간벽촌의 모습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온천관광지구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는 천수백세대에 달하는 소충 및 단층살림집들이 양덕군 온정리, 삼계리, 은하리, 통동리, 일암리, 상신리, 상성리, 사기리에 일떠선것이다.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변모된 농촌마을들의 아담한 살림집에는 살림방들과 부엌, 세면장, 창고, 집집승우리 등이 농촌생활에 편리하게 꾸려져있다.

새로 꾸러진 마을들에서는 지난 10월 농업근로자들과 주민들이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새집들이를 하였다.

새 집을 받아안은 근로자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마을마다에서 울려나오고 흥겨운 춤판이 펼쳐졌다.

양덕군 삼계협동농장 농장원 류영순은 모든 생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고 볼수록 멋있는 훌륭한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고보니 송구스럽기만 하다, 사랑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산골마을에 펼쳐진 이 광경은 우리 나라에서만 꽃피날수 있는 꿈같은 현실이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사진 리명국, 안철룡
글 김미예

혜산 - 삼지연철길 개통식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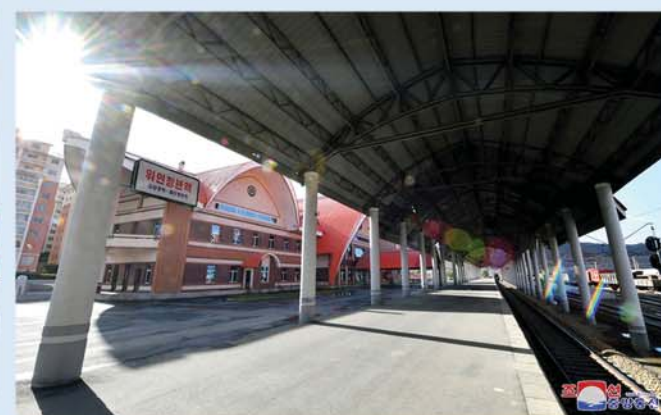
조선혁명의 발원지인 백두대지에 사회주의 이상향을 일떠세우려는 조선인민의 역센 신념과 건인불발의 투쟁기풍에 의하여 혜산-삼지연철길이 훌륭히 완공되었다.

철길건설자들은 수십개의 차굴과 다리들을 건설하고 12만여㎡의 웅벽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량강도 혜산시로부터 보천군을 거쳐 삼지연군에 이르는 수십km의 철길 구간을

로동당시대의 멋이 나게 전변시켰다.

혜산-삼지연철길 개통식이 지난 10월에 진행되었다.

사진 조선중앙통신 글 문광봉



인자하신 그 영상 그립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온 강산에 사무치는 12월이 왔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해안가에 자리잡은 우리 성천강출하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 모두에게는 더욱더 가슴쓰겁게 안겨드는 12월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100(2011)년 12월 10일, 류달리 출고 바다 바람이 기승을 부렸던 이날에 자그마한 수산물가공기지인 우리 사업소를 찾아주시였기때문입니다.

오시는 걸음으로 수산물가공장의 홀에 전시된 제품들앞으로 다가 서시여 그 가공방법과 포장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날 사업소의 여러곳에 인민을 위한 사랑의 자욱을 새기시였습니다.

가공장을 찾으시여 작업에 열중하고있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오래 동안 보여주신 그이께서는 종합리영실에 들어서시여서도 간막이유리를 통하여 3차가공장을 보여주시며 하얀 위생복을 입은 종업원들이 수산물을 정성껏 가공하고있다고, 작업장이 깨끗하고 위생성도 잘 보장되어있다고 교시하시였습니다.

종합리영실에서 사업소의 경영활동에 대한 저의 설명을 들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곳에 꾸려진 수산물생산토대가 대단하다, 살아있는 수산물을 보관하는 축양장이 있고 하루에 많은 수산물을 급동할수 있는 설비와 수천t을 랭동할수 있는 저장고도 있다, 수산물을 2차, 3차 가공할수 있는 설비들도 그췌히 갖추어져있다, 사업소에 콩크리트

잔교도 있고 고기잡이배도 많다고 치하시였습니다.

응당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그렇듯 높이 평가해주시니 빈터에서 사업소를 힘겹게 일떠세우던 나날들이 삼삼히 어려웠습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였던 주체87(1998)년 6월에 설립된 우리 사업소는 처음에는 다른 고장의 수산사업소에 얹혀 물고기잡이도 하고 가공도 하면서 어려운 나날을 겪였습니다.

그러다가 믿을것은 자기 힘과 과학기술밖에 없다는 각오를 안고 경영전략을 바로 세우고 종업원들의 지혜와 재능을 발동시키면서 생산활동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마침내 사업소의 부흥을 이룩하였습니다.

그 나날에 종업원은 조업초기의 6명으로부터 수백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업소의 발전과정이 수록된 연혁소개실도 돌아보시면서 제가 사업소가 설립된 때로부터 10여년동안 지배인으로 사업하면서 당정책을 관철하고 사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을 많이 하였다고 과분한 치하를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산 가재미며 넉치, 털게, 우레기, 조개 등이 들어있는 축양장도 일일이 돌아보시고 사업소에서 생산하는 가공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알아보시면서 앞으로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팔아줄데 대하여 간곡히 교시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희들이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들과 지혜를

함쳐 계곁질에서 얻어낸 키토잔으로 만든 여러가지 용도의 나노제품들도 보여주시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도 제시하시였습니다.

이날 우리들의 한결같은 소원을 헤아려 수산물가공장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도 남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인민을 위하여 일을 잘하기 바란다는 당부와 자신께서 날씨가 더울 때 다시 와보겠다는 귀중한 약속을 남기시고 사업소를 떠나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파로로 하여 서거하시기 바로 한주일전의 날로 될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피터지는 2011년의 12월 결교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으나마 기여할 때면 어버이장군님과 똑같이 태양과 같은 미소를 지니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꼭 오시리라는 간절한 희망을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오늘 사업소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해마다 많은 물고기를 잡고 양식도 하여 각종 가공제품과 산물고기제품들을 인민들에게 보내주고있습니다.

또한 현대적인 나노제품생산공정을 갖추어 놓고 나노금다당주사약, 나노금키토잔수를 비롯한 수십여가지의 나노제품들을 개발생산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성천강출하사업소 지배인 김선실

저희들은 앞으로도 12월의 그날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시였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살펴주시는 우리 인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칩니다.

사진 리철진
글 김선실





평양타조목장

평양시 북쪽교외에 평양타조목장이 자리 잡은 때로부터 20여년이 흘렀다.

주체87(1998)년 9월의 창립당시 수백마리 정도의 타조를 키우는데 필요한 여러개의 사양관리시설만이 있던 이곳은 그동안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55만㎡에 달하는 목장의 부지에 준비하게 늘어선 110여개의 타조우리들의 사육능력은 1만마리에 달한다. 목장에는 이와 함께 알깨우기실들, 큰단백물채배장과 단백공장장을 비롯한 사료보장기지들, 타조고기가공공장 등이 훌륭하게 꾸려져있다.

꾸준히 터득해온 경험과 현대가금학의 발전 성과에 토대하여 타조사육업의 새로운 경지를

끊임없이 개척하면서 기업경영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해오고있는 이 목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다.

최근년간에만도 목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하여 알깨우기로부터 먹이공급, 사양관리, 고기 및 가죽생산과 가공에 이르는 모든 경영활동의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를 꾸려놓고 축산과 사료작물생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보다 큰 경제적실리를 얻고있다.

우량한 개체들의 선별 및 육종체계를 완성하고 효율높은 먹이첨가제를 개발하는 등



훌륭한 기술적진보를 이룩한 목장에서는 새 품종의 타조를 키우기 위한 연구사업도 활발히 내밀고있다.

목장에서는 타조고기 가공공장에서 생산한 갖가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고기가공품들만이 아니라 타조의 깃털과 알껍질, 뼈 등으로 만든 여러가지 공예품, 장식품들도 상업봉사망들에 보내주고있다.

오늘 목장으로서는 경험을 배우려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관광객들도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군 한다.

사진 최원철
글 김선경



중앙조종실



사료성분 및 원료분석



수인방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알깨우기실



고기가공장



타조의 깃털과 알껍질, 뼈 등으로 만든 공예품들과 가족제품들

수산자원을 늘여간다

함경남도 홍원군 읍지구의 바다가에 나서면 곳곳에 자리잡은 양식장들을 보게 된다.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높이 받들고 조선동해안의 이름난 수산기지들중의 하나인 홍원수산사업소에서 꾸려놓은 양식장이다.

사업소에서는 양식장과 함께 700여정보에

달하는 증식장도 조성하였다.

지금 이곳들에서는 사업소의 배양직장에서 키워서 방류한 우레기과 가재미, 밥조개, 섭조개, 피조개, 굴, 해삼을 비롯한 여러가지 바다동물들이 대대적으로 서식하고있다.

사업소에서는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양직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것과 함께 수산성 수산연구원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바다자원양식에서 나서는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해나가고도록 하고있다. 하여 수천㎡에 달하는 바다동식물배양장을 일떠세우고 질좋은 배합먹이를 생산하기 위한 클로렐라배양장을 꾸려놓았다.

그리고 양식품종울 늘이기 위한 사업도 즐기

치게 벌리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종전의 여러종의 굴들에 비해 맛 좋고 영양가가 높으며 병견딜성이 높은 등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종의 굴양식에 성공하였다.

지금까지 사업소에서는 수백만마리의 새 종자굴을 생산하여 동서해안의 양식단위들에 보내주었으며 홍원앞바다에서만도 수십t의 굴을 양식하여 상업망들에 보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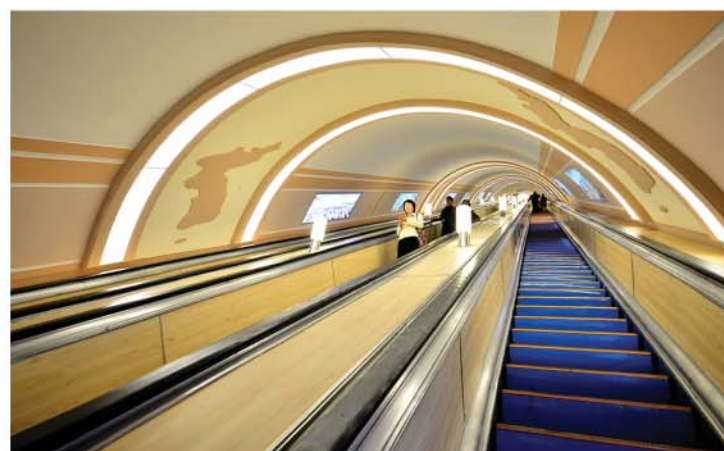
사진 최명진
글 박병훈



사업소에서는 굴, 해삼, 조개를 비롯한 바다동물양식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생산에서 성과를 올리고있다.



평양 지하철도





새로운 건설의 대변영기와 더불어 해가 갈수록 달라지는 평양의 모습은 지상에 펼쳐진 룡라인민유원지와 문수물놀이장, 과학기술전당과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양에는 수도의 교통문제해결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평양지하철도가 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건설된 평양지하철도는 수도 시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도모해주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로정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하는 대형벽화들과 부각품 등이 매 역들을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개통된 초기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이러한 평양지하철도가 최근년간에 이르러 계속 변모되고 있다.

2년전 에네르기절약형거리, 룡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갖춘 려명거리가 일떠설 때 전승역, 삼흥역의 지상역들이 개건된데 이어 개선역과 통일역의 모습이 차례로 일신되었다.

지상역들은 물론 지하역들의 천정과 벽, 바닥과 기둥들의 건축형식과 장식은 보다 화려해지고 새로운 조명형식과 조명 시설들로 밝고 부드럽게 처리되어 지하공전의 황홀경을 돋구고 있다.

건축형식에 조화를 맞추며 텔레비존과 의자 등이 역마다 새롭게 설치되어 려객들의 편의를 더욱 도모해주고있다.

하기에 개건된 지하철도역들을 리용하는 사람마다 멋쟁이라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오늘도 평양지하철도는 날이 감에 따라 변모되면서 시민들의 마음속으로 더 가깝게 다가가고있다.

사진 최원철
글 강수정



지하철도를 참관하고있는 외국인들



서 흥 땅의 교육자가 정



황해북도 서흥군에는 군안의 주민들 누구나 아는 교육자가정이 있다.

현재 16명에 달하는 이 일가의 교육자들중에는 군교원재교육강습소 소장과 함께 교장이 4명, 유치원 원장 1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소학교, 고급중학교들의 교원이다.

3대를 걸치는 이 교육자가정은 조경일을 비롯한 다섯남매의 아버지 조영하와 어머니 리대순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주체38(1949)년부터 교원으로 일하면서 그후 남편이 교장으로 있는 서흥군 운천고등학교(당시)의 교원이었던 리대순은 리에 새로 생긴 상물분교의 교원문제가 제기되자 남편과 토의하고 그곳으로 자원하여 갔다.

그리고 그후 두 딸도 이 외진 산골분교의 교단에 세웠다.

그러던 리대순은 주체67(1978)년 가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제8차 전국교육일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연단에까지 나서게 되었다.

그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본인뿐 아니라 남편과 딸들이 모두 교원이면 정말 대단하다고, 이 훌륭한 교육자가정에 전국교육일군대회의 이름으로 축하를 보내주자고 하시며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시었다.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그들부부는 이

한생을 교육사업에 바친 부모의 뒤를 이어가고있는 서흥군교원재교육강습소 소장 조경일의 다섯남매와 그들의 자녀 16명은 오늘날 유치원과 고급중학교, 분교들에서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을 바쳐가고있다.

사랑과 믿음을 대를 이어 빛내여갈 굳은 마음을 다졌다.

주체71(1982)년 2월 나라에서 20여리나 되는 학교길을 오가는 문무리의 남산골 아이들을 위해 문무고등중학교(당시) 은덕분교를 세워준 때부터 남편은 이 학교의 교장으로, 리대순은 분교장으로 일하면서 교육사업에 한생을 바쳤다.

그들의 고결한 녀은 자식들은 물론 손자들의

대까지 이어졌다.

체육에 남다른 소질이 있어 전문체육선수가 되려던 둘째아들 조경훈도 부모들의 뒤를 이었으며 오늘은 서흥군 봉화고급중학교 교장으로 사업한다.

만아들 조경일의 딸 조은혜는 대학을 다닐 때 대학생과학탐구상과 학위까지 받았었다.

변화한 도시에서 교원을 하고싶은 생각이 그 인들 어찌 없었으랴.

그러나 그는 농촌마을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부모세대들처럼 살리라 결심하고 교장으로 돌아와 교단에 섰다.

미래를 위하여 자기를 바치라, 이것이 이 교육자가정의 가풍이고 룰리이다.

사진 리진혁
글 박병훈



어린이들의 바둑경기

- 가을철 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 -



조선민민의 전통적인 민속놀이의 하나인 바둑은 오늘 높은 급의 지능경기종목으로 되어 어른들은 물론 어린이들속에서 까지 널리 장려되고있다.

해마다 많은 어린이바둑경기들이 열리는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가을철평양시어린이바둑경기가 진행되었다.

경기에는 시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생, 소학교학생 근 400명이 참가하였다.

5살미만부류(9줄바둑), 6살부류(13줄바둑), 소학교부류(19줄바둑)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에서 주목을 끈것은 유치원 어린이들이 소학교부류 경기순위권에 입선한것이였다.

이번에 경기조직자측에서는 희망에 따라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이 한급 높은 부류별 개인경기에도 참가하게 하였는데 뜻밖에도 유치원어린이들이 소학교부류(여자)경기에서 1, 2, 3위를 모두 차지하여 심판원들을 놀라게 했다.

주목되는것은 또한 개인경기 우승자 6명중 5명이 전승을 기록한것이다.

구역별 종합순위에서는 보통강구역, 모란봉구역, 중구역이 각각 1, 2, 3위를 하였다.

사진 손희연
글 문광봉





소중한 꿈을 이룬 소녀



평양시 중구역에서 사는 올해 23살의 주수양은 무용수이다.
 그가 무대 위에서 아름답고 우아한 춤동작들을 펼쳐보일 때면 사람들은 천성적인 재능을 지녔다고 감탄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청력장애자인 그가 무대에 나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기까지의 고심어린 노력에 대해서는 미처 알수 없는 관중들이다.
 2살때 불상사를 당하여 다시는 들을수 없게 된 수양에게 어릴적 제일 재미있었던것은 텔레비전에서 자기 또래의 처녀애들이 춤추는것을 보는것이였다고 한다. 차츰 그에게서는 화면에서 본 춤동작들을 거울앞에서 그대로 재현해보는 습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부모들에게도 춤을 추게 해달라고 조르곤 하였다.
 하지만 그의 요구라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던 아버지도 그 청만은 거절하는것이였다.
 무용은 음악과 결합되어있고 음악의 기본수단은 다름아닌 소리인데 어떻게 춤을 배운단말인가. 그러던 수양은 룡악학교시절인 14살때 조선장예자예술협회 무용소조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가물에 단비와도 같은것이였다. 이때부터 수양은 소조에 망라되어 것처럼 갈망하던 무용을 배우게 되었다.
 제일가는 애로는 역시 듣지 못하는것이였다.
 선聽到에 맞추어 불동을 펼쳐야겠는데 음악이 끝난줄도 모르고 동작을 계속하기가 일쑤였다. 그다음에는 고민이 뒤따르곤 하였다.
 그러나 수양은 주저않지 않았다.
 그는 음악기계에 손을 대고 리듬을 손감각으로 터득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매 동작의 수행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그것을 어기지 않기 위해 애썼다.
 하여 1년후부터는 그토록 소망하던 무대에 서게 되었다.
 그는 지금까지 민속무용들인 《3인무》와 《장고춤》, 외국동화무용 《백설공주와 일곱명의 난쟁이》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였다.
 이제는 수양의 부모들도 그가 출연하는 공연들을 빠짐없이 찾아와 보곤 한다.

사진 손희연
글 김선경



민속무용 《3인무》와 손말시 《사랑하노라》, 무용 《모르는가봐》 등 여러 작품들에 주역으로 출연하여 국내외사람들의 절찬을 받았다.



체 험 으 로 새 기 는 민 속 풍 습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의 수도 평양에는 아름다운 경치로 하여 이름난 곳들이 많은데 그중에는 예로부터 관서8경의 하나로 불리워진 대동강기슭의 루정인 련광정도 있다.

그 부근에 대동문과 평양종을 비롯한 문화 유적, 유물들도 있어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이곳에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있다. 그것은 평양시인민위원회 민족유산보호

관리소에서 사람들이 유구한 민족풍습의 이모저모를 직접 체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난것이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역사박물관과 민속박물관

관 등의 전시대에서만 보던 선조들의 의상들을 입어보기도 하고 가야금을 비롯한 민족악기들을 타보기도 한다.

문방구들을 차려놓은 곳에서는 옛사람들처럼 붓으로 먹을 찍어 글을 쓰거나 시를 지어보는 사람들도 볼수 있다.

결혼식을 하는 청춘남녀들도 이곳을 즐겨 찾고있다.

관리소의 한 일군은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든 사람들뿐 아니라 청년들과 학생소년들이 자주 찾아오는것을 보면서 유구한 력사와 민속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사업에 대한 긍지도 느끼게 된다고 말하였다.

련광정에서만아니라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을 제사지내던 사당인 장대제밀의 승령

전과 룡악산을 비롯한 수도의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광경이 펼쳐지고있다.

하기에 평양을 찾았던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은 조선인민들의 생활속에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지향이 깊이 자리잡고있다고 감동을 금치 못한다.

사진 안철원
글 강수정

